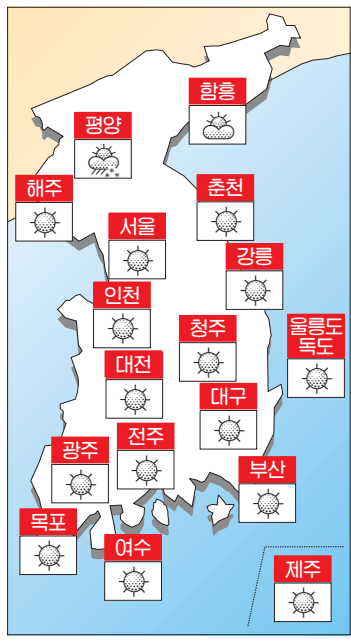


화창한 주말

12월 23일 (음 11월 4일)

Weather forecast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e.g., 광주, 목포) and temperature range.



서해남부 앞바다... 해상교통사고 0.5~1.0m... 해상교통사고 1.0~1.5m...

목포 밀물 03:26 썰물 08:50... 여수 밀물 11:04 썰물 04:19...

Table with 6 columns: Day (24th, 25th, 26th, 27th, 28th, 29th), Weather icons, and High/Low values.

반송된 美産 쇠고기서 허용치 초과 다이옥신

뺏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5 피코그램(ppg)/(g fat)을 웃도는 6.1p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이 방화 4명 화상

현직 경찰관이 호프집에 불을 질러 업주 등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1일 밤 10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 S호프집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유모(43)경사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18ℓ를 석유난로에 부어 불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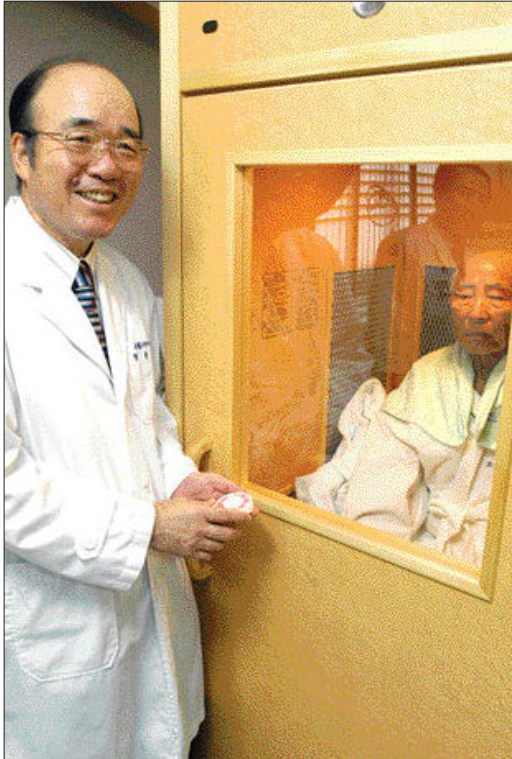
제이유 관련 공직자 3명 무혐의

제이유 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전 비서관 가족 6명은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지난해 12월 이후 1억5천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외국인 최초 日 국립대병원 주임교수 정 총 화 씨

한국인 자존심, '차별' 이겨내다

"만약 일본에 살면서 차별을 전혀 안받았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나에게 한국 국적을 끝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정총화 교수가 조선대 병원에 설치된 '원적외선 균 등 치료기' 앞에서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 불이익...분교로 떠밀려 사우나 치료법 개발 큰 반향

수와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사우나 형태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이 기기는 '심장병 환자에게 사우나는 독'이라고 알려진 그간의 정설을 뒤엎는다. 60도 수준의 온도와 적절한 시간(15분)을 유지하면 말초혈관을 늘려 심장의 부담을 덜고, 심장 박동수를 10% 이상 증가시킨다는 이론을 내세워 일본 심장외과학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진급도 더더서 정교수가 되게 1998년입니다" 정 교수는 1989년 '대학교수를 그만 두고 개업을 할까'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중이었다. 바로 그때 '죽기 전 한 번만이라도 온천에 몸을 담고 싶다'는 73세의 심부전증 환자를 만났다.

조선대병원에 치료기 기증 "모국 사랑이 삶의 버팀목"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온천보다 위험도가 낮은 사우나로 연구 범위를 좁혔다. 1994년에는 그간의 연구를 논문으로 내놓았다. 학계의 정설을 뒤엎은 그의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학회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아직은 곳곳 혼란... '환승'이 성패 관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들쭉날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개편 시행 이틀째를 맞아 새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날에 이어 22일에도 광주지역 대부분 시내 버스정류장에는 새 노선표를 바라보며 새로 바뀐 버스 번호와 환승지를 헤아리는 학생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여럿였다.

▲환승하고 극대화하 관건=광주지역 장거리 중북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단거리 노선과 환승지점을 늘리고 배차간격과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환승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을 만들었다.

일부 승객은 인식기 작동 오류로 무료 환승을 못 했는가 하면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들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실제 새롭게 선보인 시내버스 LED 번호판을 "인식이 쉽다"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들은 작고 초라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22일 오후 광주역 광장 앞에서 열린 '국립대 법인화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장애아 상습 성폭행 셋 구속

1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파렴치한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특수강간 혐의로 한모(47)·김모(37)·조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구 모 모델 7층 객실로 정신지체 장애인 A(15)양을 유인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는 등 이후 한 달여 동안 번갈아가며 9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7월까지 전남 모군 군내버스 운전기사였던 한씨는 자신의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A양과 친분을 쌓은 뒤 A양을 유인해 버스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명퇴 바람' 광주·전남 77명 신청

광주·전남지역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은 초등 39명, 중등 22명 등 61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검침원 사칭 농촌노인 돈 갈취 ○농촌 노인들 상대로 한전 검침원을 사칭해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달라고 속여 돈을 갈취한 40대 2명이 경찰에 걸렸다.

○2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박모(44·전주시 완산구 삼전동)씨 등 2명은 지난 5월 중순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정모(여·79)씨의 집을 찾아가 "누전 차단기가 오래돼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정씨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자가(4만원 상당)의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등 5회에 걸쳐 100만여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농촌 노인들이 누전 차단기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나원침 (7009) 김현주



평종연도저의 중점특반을 누리려는 3,636 최대환자! 평종연도저의 중점특반을 누리려는 3,636 최대환자! 수원신도시 피오레

치매 급증 5년새 두배나

노인성 치매 환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성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대가 2천 631명, 60대 1만3천24명, 70대 2만6천 585명, 80대 이상이 1만9천592명으로 집계됐다.

교사 '명퇴 바람' 광주·전남 77명 신청

광주·전남지역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은 초등 39명, 중등 22명 등 61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검침원 사칭 농촌노인 돈 갈취 ○농촌 노인들 상대로 한전 검침원을 사칭해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달라고 속여 돈을 갈취한 40대 2명이 경찰에 걸렸다.

○2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박모(44·전주시 완산구 삼전동)씨 등 2명은 지난 5월 중순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정모(여·79)씨의 집을 찾아가 "누전 차단기가 오래돼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정씨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자가(4만원 상당)의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 주는 등 5회에 걸쳐 100만여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농촌 노인들이 누전 차단기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영광=조익성기자 ischo@